



동물개봉사단 이웅중 단장(왼쪽)이 대하ENG 박화진 대표로부터 마스크 2만 장을 후원받고 있다. 사진제공 | 동물개봉사단

동물개봉사단, 마스크 2만장 기부 대하ENG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전하

반려동물을 매개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동물개봉사단(단장 이웅중)이 이번에는 어르신을 위해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한다.

동물개봉사단에 따르면 봉사단은 26일 오후 3시 세종시 전의면을 찾아 1회용 마스크 2만 장을 기증할 예정이다. 마스크 2만 장은 좋은 곳에 쓰인다는 취지에 공감한 대하 ENG(대표 박화진)가 선포 내놓은 것이다.

이웅중 단장이 이끄는 동물개봉사단은 매일 전국의 소외계층을 위해 동물매개 치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면서 접촉활동이 많은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물개봉사단은 매일 정부의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비접촉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단장은 “겨울이 다가오니 좋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마스크 기부도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알아보니 시골 지역은 의외로 기부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세종시 전의면이 고향인데다 전의면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 단장은 논의 끝에 전의면에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수소분한 끝에 대하 ENG의 마스크 2만 장을 지원받게 됐다. 동물개봉사단은 마스크를 기부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동물매개치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한다.

이 단장은 “제가 기부한다는 말을 널리 알리니 후원하겠다는 업체들이 나왔다”며 “가장 먼저 마스크를 지원해 준 대하 ENG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하 ENG 박화진 대표는 “나눔으로 도움 받으실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에듀윌

검정고시 수강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 단어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 약 39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센터가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못다 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 훈련을 받던 청소년들의 교육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가 구로경찰서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듀윌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세트를 지원해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병귀 구로경찰서장은 “교육 시장에 온라인·언택트 트렌드가 불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교육 선도 기업인 에듀윌과 더욱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구로 지역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과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명규 대표이사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구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이번 검정고시 지원 사업 역시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도마에 오른 ‘대학병원연구소의 동물실험’

“출처불명 동물로 맘대로 실험 하다니..”

경북대 실험동물 226마리 무허가 개 쓰다 승인신청 후 토끼 구입도 값싼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 급증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한목소리

전국 대학 병원 연구소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과 관련해 연구윤리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대는 실험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동물을 많이 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불명의 동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경북대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대가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 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각각 211마리(44.9%), 15건(3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개를 쓴다고 승인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토끼를 구입한 경우 ▲제약사 등으로부터 기부받아 실험에 사용했다며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은 경우 등 각종 출처불명 동물을 실험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북대에서는 실험견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실험을 하다가 죽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미 실험에 동원된 동물을 다른 실험에서 또 쓴 일도 있었다. 연구윤리 논란을 일으킬만한 행위들이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인구 1500만 명 시대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 실험 시설에서 처리한 동물 사체는 총 2654톤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전국 수의과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출처불명의 동물들이 대학병원에서 실험대상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동물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입된다. 사진제공 | 펫뉴스

출처불명의 동물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입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팔려나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였던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이 올 들어 8월까지 8493마리가 수입돼 팔려나갔다. 반려묘의 경우 지난해 614마리에서 올해 8월까지 1364마리로 2배 이상 늘었고, 반려견은 4342마리에서 7129마리로 64%나 늘었다.

문제는 사육환경과 번식 과정 등이 불투명한 수입 동물의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값싼 중국산 강아지가 국내산 강아지로 탈바꿈해 비싸게 판매될 가능성도 높다.

홍문표 의원은 “반려동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이력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건국대 제4기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과정 신입생들과 서한국 농축대학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 이상원 주임 교수(뒷줄 왼쪽에서 1번째), 20일 진행된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과정 입학식에서 서한국 농축대학원장 “코로나로 개강이 늦춰졌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닷 올렸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4기 출범
트렌드·디지털마케팅 등 9개 분야 수강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과정인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과정 4기가 닷 올렸다. 건국대 최고우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지난 20일 건국대 생명과학관 422호에서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우 과정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서한국 농축대학원장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고우 과정을 시작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코로나로 개강이 늦어져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고우 과정은 본래 3월 개강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지면서 개강 시기가 늦춰졌다.

최고우 과정은 총 9개의 교과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트렌드·비즈니스 ▲글로벌 ▲사료 ▲의·약품 ▲유통 ▲디지털마케팅 ▲기초행동 ▲매기심리 ▲정책·법 등 9개 분야다. 최고우 과정 진행 중 1박 2일의 워크숍 및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우 과정도 ‘모두 건강히 교육과정 수료’라는 목표 아래 출석 전 자가테스트와 문진결과 확인연락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한국 건국대 농축대학

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최고우 과정 주임교수 등 교수진과 20여 명의 최고우 과정 수강생, 김효승 1기 원외회장, 조동진 3기 원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원 주임교수는 “최고우 과정 4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우 과정은 내년 2월 16일까지 바쁜 일정을 이어가며 최고우 과정 수강생들을 반려동물산업 일꾼으로 키워낸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기능성과 심미성 모두 갖췄다…‘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잇몸 질환 우려 줄여줘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돼 진료를 미루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비롯한 이상이 느껴지는 즉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심한 충치, 잇몸질환, 외상, 노화 등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로 임플란트는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100세 시대 필수 치료로도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심미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임플란트의 우

수성은 입증됐지만, 비싼 치료비가 시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만65세 이상이라면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도 조건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인정된다.

만약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한다면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잇몸 뼈 및 잇몸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철물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플란트 보철은 크게 PFM, 골드, 지

르코니아로 나눌 수 있다. 흔히 포셀린이라 불리는 PFM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강한 저작력이 요구되는 어금니에 사용하면 파절될 염려가 있다. 골드는 치아와 가장 유사한 성질과 강도를 보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심미성이 떨어져 주로 어금니 보철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치아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심미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니나 어금니에도 지르코니아 보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금속 보철을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금속 알레르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강도 역시 다이아몬드에 비견될 만큼 강해 오랫동안 건강하

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치석이 쉽게 끼지 않아 잇몸 질환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첨단 장비를 통해 제작되는 만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구강 위생관리에도 유념해야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해 구강 상태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전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술 후 주의 사항을 체크해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프라이치과 이홍식 원장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